

정시에서 수능 백분위 반영 대학이 궁금해요.

중위권에서 백분위 반영 대학 많아

정시 모집에서 대학들은 절대 평가인 영어를 제외하면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를 활용해 환산 점수를 산출합니다. 상위권에서는 하나의 백분위에 다수의 표준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선이 높은 대학일수록 표준점수를 활용합니다. 반면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은 중위권에 많습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상위권은 백분위보다 표준점수를 활용하면 성적을 더 세분화해 우위를 가릴 수 있다. 성적 분포를 보면 상위권은 적고, 중위권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항아리 형태를 띤다. 2025 수능 수학에서 표준점수 116점은 백분위 74이지만, 표준점수 115점은 백분위 70이었다. 표준점수 차이보다 백분위 차이가 크다. 점수대 혹은 수능 성적에 따라 유리한 활용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2025학년 수능 수학 기준 백분위 100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138~140점 중 138점은 백분위 반영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표). 이처럼 자신의 수능 성적을 유리하게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분위 반영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단국대 상명대 등이며 올해 성균관대가 나군에 합류했습니다.

허 수석연구원은 “성균관대 나군, 일부 의학 계열에서 백분위를 활용한다. 비슷한 성적 대 타 대학과 다르게 성적을 환산하면서 입결이 상승하고, 경쟁률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②*

표_ 2025 수능 수학 표준점수 · 백분위 비교

표준점수	140	139	138	137	136	135	...	116	115
백분위	100	100	100	99	99	99		74	70
계	1,522	59	67	3,149	156	419		18,172	9,062
누계	1,522	1,581	1,648	4,797	4,953	5,372		126,229	135,291